

	<b>보도자료</b>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	보도 시점 '06.2. 24(금)조간부터		
			자료배포일 '06.2. 23	매 수	총 1매
과학기술부	담당  원자력안전과	과 장	조성찬	02) 2110-3660	
원자력국		서기관	이근재	02) 2110-3661	

## 현장중심의 원자력안전체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점 파악 - 향후 원자력안전규제정책에 반영 -

□ 과학기술부(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: 金雨植)는 2006. 2. 24(금) 10:30 국가원자력방재상황실에서 원자력발전소 주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○ 금번 회의는 지난 1월 과학기술부가 “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체제 가동” 시책을 수립·시행한 이후의 첫 번째 회의로 원전 현장의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.

※ 현장중심의 원자력안전체제 주요내용

○ 현장중심의 안전관리활동 강화 및 선진규제기법 도입

- 현장지역 방재관 및 주재관 역할 강화(방재관 4명 → 8명, 주재관 12명 → 14명)

- 정기검사 전담팀제 및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정기검사 수행 등

○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원자력방호·방재 기반 구축

-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추가 건설, 원자력시설 방사선원의 보안 및 테러예방 체제 가동, 모바일 기반 현장 방사능·방재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,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등

□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관 및 주재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안전규제 수행시 발생하는 애로점과 규제경험, 제도개선 사항 등을 토론하고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.

○ 주요 안전규제 경험으로는 월성주재관실에서 월성 전호기를 대상으로 계획 예방정비시 구역별 작업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연료탐지계통 시료채취배관 전량을 점검 및 정비 조치토록 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.

□ 또한 과학기술부는 금번 회의에서 도출된 현장 안전규제시 발생하는 애로점 및 규제경험 등을 파악하여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에 반영하고

○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1년에 2회씩 주재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안전규제시 발생하는 애로점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
---

문의 :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이근재 서기관 (02-2110-3661)